

# 기후변화 대응·탄소중립 실천 산·학·연·관 ‘맞손’

### 녹색에너지연구원 등 광주·전남 탄소중립 혁신정책 포럼 개최 초광역 협력 모델 통해 탄소중립 정책·기후기술혁신 방향 모색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산·학·연·관이 머리를 맞댔다. 17일 녹색에너지연구원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의 탄소중립 정책과 기후테크 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RISE-GLOCAL 초광역권 대학 학생 모델 광주·전남 탄소중립 혁신정책 포럼’이 최근 조선대학교 자연과학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광주·전남 지역의 탄소중립 조기 달성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 제안

을 위해 조선대학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사)기후미래, 녹색에너지연구원, 목포시탄소중립지원센터가 공동 주최했으며, 조선대 RISE 사업과 글로벌대학 추진 전략을 기반으로 지역 대학·연구기관·산업계가 참여하는 초광역 협력 모델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과 기후기술 혁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세션1 ‘탄소중립 정책과 모범사

례’와 세션2 ‘광주·전남 기후테크 혁신방안’으로 진행됐다. 조선대는 교육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와 글로벌대학 사업을 추진하며,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지자체·산업계·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목포시 탄소중립지원센터는 목포시의 녹색성장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목표로 녹색에너지연구원이 목포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목포시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지원하고 있다.   
박정열 기자 holbul@gwangnam.co.kr



광주·전남 지역의 탄소중립 정책과 기후테크 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RISE-GLOCAL 초광역권 대학 학생 모델 광주·전남 탄소중립 혁신정책 포럼’이 최근 조선대학교 자연과학관에서 개최됐다.

## 이재태 전남도의원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최우수상 수상

### 3년 연속 영예...산업·생활·광역협력 정책 선도 등 인정 인공태양 연구시설 구축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노력

이재태 전남도의원 (더불어민주당·나주3)이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최우수상을 3년 연속 수상했다. 이재태 도의원은 지난 16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2026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공모대회’ 시상식에서 ‘사회경제발전력 증진’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024년, 2025년에 이어 3년 연속 수상이다.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은 사단법인 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하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한국지방자치학회 등이 후원하는 상으로 참여와 파트너십에 기반한 자치분권 활동과 우수한 지방정치 활동을

펼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 의원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활성화 위해 산업 기반 구축, 생활환경 개선, 광역 협력체계 강화 등 혁신도시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에 필요한 정책 제안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혁신도시 재도약 기반을 마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의원은 △전남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 △전남도 레이저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남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 (전국 최초) 등을 대표 발의하며 혁신도시의 성장 동력이 되는



에너지·신산업 중심의 지역 산업 육성을 활성화 지원 조례 △전남도 레이저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남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 (전국 최초) 등을 대표 발의하며 혁신도시의 성장 동력이 되는

혁신도시 상권 침체와 정주 여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혁신도시 발전재단 설립 필요성을 제기하고 상가 공실 문제 공론화,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 논의 등을 이끌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의제를 꾸준히 제시해 왔다. 아울러 광주-나주 광역철도 건설 점검 및 건의, 광주·전남 상생협력기구 정상화 촉구, 혁신도시관리청 신설 제안 등 광역 거버넌스 기반 정책 개선 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이재태 도의원은 “지역 주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 온 과정이 큰 힘이 됐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정책으로 연결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7일 광주사랑의열매 나눔문화관에서 백철수 유휴회사 빅토프터너스 대표의 광주 아너 소사이어티 199번째 회원 가입식을 열었다. 사진제공=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 광주 아너 소사이어티 199번째 회원 탄생

### 백철수 빅토프터너스 대표

광주사랑의열매 개인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199번째 회원이 나왔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7일 시육 나눔문화관에서 백철수 유휴회사 빅토프터너스 대표 (40)의 광주 아너 소사이어티 199호 회원 가입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가입식은 백철수 대표와 구제길 광주사랑의열매 회장, 이상철 광주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대표를 비롯해 김안나 아너 여성 부대표, 허영숙 아너 집행부 재무국장, 백철수 대표 가족과 빅토프터너스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가입식은 백철수 대표 부부의 결혼 15주년 기념일에 진행, 부부가 함께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백 대표의 종합광고대행사 (유) 빅토프터너스를 운영하고 있다.

빅토프터너스는 2024년 11월 설립된 광고 전문 기업으로 분양 광고, 옥외광고, 홍보, 광고기획 등 다양한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백 대표는 “평소 이웃과 함께하는 삶을 중요하게 생각해왔다”면서 “나눔이 또 다른 나눔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를 존중하며 따뜻한 가치를 나누는 가족들의 응원과 지지가 큰 힘이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기업인이 되고 싶다”고 전했다. 구제길 회장은 “광주 아너 소사이어티가 이제 200호 회원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이번 가입이 지역 나눔문화 확산의 또 다른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너 소사이어티’는 1억원 이상 기부 또는 5년 이내 1억원 기부를 약정한 개인 고액기부자 모임으로, 지역사회 나눔문화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기부 프로그램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서해현 서광병원장, 광주YMCA 이사장 취임

### 19일 YMCA 무진관서 취임식

서해현 광주 서광병원장 (사진)이 제46대 광주YMCA 이사장으로 취임한다. 광주YMCA는 19일 광주 동구 금남로 광주YMCA 무진관에서 서해현 신임 이사장 취임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제45대 나일도 이사장이 임직기도 진행된다. 행사는 1부 개회예배 (찬송, 기도, 성경봉독 등)와 2부 아·취임식으로 나눠 진행된다. 행사는 회교영상 상영과 나일도 제45대 이사장 이임사, 서해현 제46대 이사

장 취임사, 신임 임원 소개, 공로패·꽃다발 증정, 축사, 기념사진 촬영 등 순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서해현 이사장은 광주YMCA 부이사장과 서구·광산지회 운영위원장, 문화체육위원장, 혁신위원장, 합창단장 등을 역임했다. 또 학교법인 전라기독교학원 (광주보건대학교) 이사장, 학교법인 인성학원 (인성고등학교)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송태경 기자 sty1235@gwangnam.co.kr

## “상생·실천·화합의 정신” 새로운 도약 다짐

### 제12·13대 광주미술협회 이·취임식 거행

(사)한국미술협회광주지회 (이하광주미술협회)는 최근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에서 제12·13대 지회장 이·취임식을 거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 문화예술계 인사와 미술협회 회원, 내외빈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미술협회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뜻깊은 자리가 진행됐다. 제12대 지회장을 맡아 협회를 이끌어 온 박광구 지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그동안 협회의 발전과 회원들의 협력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광주 미술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제13대 지회장으로 취임한 이병오 지회장 (사진)은 취임사를 통해 “광주미술협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상생과 실천, 화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회원 중심의 협회를 만들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미술협회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 광주과학관, 휴관일 특별 초청...천체투영·로봇 댄스 마련

### 1분기 체험 행사 마무리 광주선명학교 학생 대상

국립광주과학관 (관장 이정구)은 국립광주과학관후원회 (후원회장 김홍균, 남산산업 회장)와 함께 휴관일인 지난 16일 광주선명학교 학생 및 교직원 43명을 초청한 가운데 ‘2026년 1분기 휴관일 특별 초청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과학관의 공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균등한 과학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학관으로 초청된 학생들은 과학관 직원들과 함께 낮에도 밤하늘의 별자리를 볼 수 있는 천체투영관, 로봇 댄스공연, 미술공연 등을 관람하고 과학관에서 준비한 도시락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이경환 국립광주과학관 홍보협력실 선임연구원은 “휴관일



국립광주과학관은 광주과학관후원회와 함께 휴관일인 지난 16일 광주선명학교 학생 및 교직원 43명을 초청한 가운데 ‘2026년 1분기 휴관일 특별 초청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특별 초청행사를 통해 과학문화 소외계층의 과학 체험 기회를 넓히고, 과학과 보다 친숙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돼 뜻 깊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사회적 가치 실현이 지속될 수 있도록 국립광주과학관 후원회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광주과학관후원회는 2016년 창립 이래 분기별 특별 초청행사 외에도 매년 ‘찾아가는 과학관’, ‘과학꿈나무 초청사’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후원참여 방법은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 영암군 농업인 등 3인, 한국벤처농업대학 졸업 스마트농업 등 경쟁력 제고 전문 교육 수료

영암군 농업인 2명과 공무원 1명이 한국벤처농업대학을 졸업했다. 이들은 최근 충남 금산에서 열린 한국벤처농업대학 졸업식에서 스마트농업, 농식품 가공·유통, 농업경영전략, 농촌융복합산업 등 분야에서 농업 미래 경쟁력 제고 전문 교육을 수료했다. 선진 농업 사례, 농업경영전략 등을 학습한 이들은 앞으로 전국 농업인과 교류를 이어가며 지역 농업 경쟁력을 높일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 새 농업 소득 모델 발굴 등에 나선다. 이경 영암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한국벤처농업대학에서 지역 농업인들이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됐다”며 “농업인의 전문성 향상과 미래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과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암군은 농업인 교육, 스마트농업 확산, 청년농업인 육성 등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지속가능한 지역 농업 기반 구축에 힘쓰고 있다.   
영암·함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